



폭염 대응 행정력 총동원

도, 17일까지 '총력대응기간'

취약계층 보호 등 역량 집중

도민 대상 예방 활동도 넓혀

전북특별자치도는 연이은 폭염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15일간 '폭염 자연재난 총력대응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원택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폭염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인 만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며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에 최우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전 부서와 시군,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협업체계를 가동해 분야별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

는 데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독거가구, 야외 근로자, 농업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과 안부 점검을 강화한다. 생활지원사와 방문 건강관리 인력 등을 통해 이들의 폭염 노출 여부를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처럼 야외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에서는 물, 바람막이,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 폭염 대응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을 멈추도록 안내하고, 근로자들이 충분히 쉬 수 있도록 관리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농작업 자재와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하는 한편 축사 환기와 냉방시설 가동 상황

을 점검한다. 가축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는 대응 요령을 전파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현황을 파악해 지원에 나선다.

도민 대상 홍보와 예방 활동도 넓힌다. 재난 문자와 전광판, 마을 방송,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염 행동 요령을 널리 알린다. 경찰·소방·자율방재단 등과도 손잡고 취약지역 예찰과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이원택 도지사는 "폭염이 심화되는 만큼 읍면동별로 취약지역에 행정, 기관, 민간이 협업하여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농업인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는 당분간은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며 "주변에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폭염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 안부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도 간부회의 생중계 시범운영 첫 날... '함께하는 도정' 실천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 생중계를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며 도민과 함께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북도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 공유한다

행안부 1차 공모서 도내 8개 시군 17개 마을 '대상지'로 선정돼

완주 어두·왜목마을, 즉시 사업 추진... 16개 마을은 추후 추진

도 "민선9기 핵심공약 2030년 500곳 조성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도내 8개 시군 17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주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돼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1차 공모에는 도내 10개 시군 24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조합 구성과 사업부지 확보, 자금조달 계획,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17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17개 마을 가운데 완주 어두·왜목마을은 즉시 사업을 추진하며, 나머지 16개 마을은 부지 확보와 전력계통 보완 등 조건을 충족한 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건부 선정 마을은 6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완료하면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전력계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을 대상으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과 협의를 강화하는 등 후속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시군과 농촌마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차 공모에는 12개 시군에서 74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오는 9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을공동체 구성부터 사업부지 발굴, 전력계통 연계 검토, 사업계획 수립까지 단계별 지원을 이어가며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지역의 햇빛을 주민소득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라며 "선정된 마을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2030년 500개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달빛한잔부터 비치파티까지... 야간관광 콘텐츠 '풍성'

전주·무주·부안, 지역 특색 살린 프로그램 운영

심야극장·안성낙화놀이 등 여름밤 즐길거리 다채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주 야간관광특화도시와 무주·부안 야간관광진흥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야간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에서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야간관광 프로그램이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어진다. 전주천과 한옥마을 일원에서는 오후 5시부터 '하이라이트 전주! 달빛한잔'과 '윤슬마패'가 운영되며, 한옥마을에서는 '맛있는 전주 심야극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관광객을 맞는다. 관광객 이동편의를 위해 주요 숙소와 행사장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 셔틀버스도 함께 운영한다.

'달빛한잔'은 전주천을 배경으로 맥주와 먹거리,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야간 콘텐츠이며, '윤슬마패'는 지역 작가와 청년 셀러들이 참여하는 야외 마켓이다. '맛있는 전주 심야극장'은 캠핑 콘셉트의 야외 상영관에서 영화와 전주 로컬푸드를 함께 즐기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무주에서는 계곡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달 1일과 8일, 15일 구전동 계곡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공예 체험 등이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안성낙화놀이가 함께 펼쳐져 무주만의 여름밤 풍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안에서는 변산·계포·모항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변 야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변산해수욕장에서는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일 오후 7시 '변산 비치파티'가 열려 버스킹과 비치팝 등을 운영하고, 계포해수욕장 광장에서는 같은 기간 매일 밤 8시 '계포 요선 바이브'가 열려 DJ 퍼포먼스와 라이브 공연을 선보인다. 모항해수욕장에서는 같은 기간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항 비치 버스커스'가 운영돼 해변 버스킹 공연으로 여름밤의 정취를 더한다.

도는 도심과 계곡, 해변 등 지역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는 도심의 감성을 무하는 자연과 전통문화를, 부안은 서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올여름 전북에서 낮에는 자연과 문화를, 밤에는 지역의 매력에 담긴 야간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한 줄 소식

국수본부장, "1차 수사 완결성 높일 것... 보완수사 요구대폭 줄이겠다"

